

#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 한국·일본·태국 관광

## 한국 해안·단풍관광, 일본 홋카이도 단풍·온천관광, 태국 유적지·휴양지 관광

사우스베이 한미 노인회(회장 전충차)는 10월 20일부터 단풍 시즌을 맞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 관광을 떠난다. 10월 21일부터 6일간 한국의 새로운 해안관광 명소와 단풍의 정취를 경험해 보고, 10월 26일부터 4일간 일본 홋카이도(북해도)에서 온천 및 단풍관광을 갖는다. 아울러, 10월 29일부터 5일간 태국의 방콕&파타야의 유적지와 휴양지를 관광하는 일정이다.

LA 공항 출발부터 한국, 일본, 태국 관광의 전 일정 내 가이드가 동행한다.

한국 여행은,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던 먼 바다의 섬들에 지금은 기차가 연결되어,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 그 어느 여행상품도 없었던 신비로운 낙도의 향연을 즐기며, 각종 향토 음식을 접해보고, 최상의 호텔에서 럭셔리한 여행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주요 관광지는 영흥도, 제주도, 행담도, 새만금, 장자도, 채석강, 격포항, 임자도, 증도, 진도 타워, 명랑 해상케이블카, 완도, 신지도, 명사십리, 가우도, 순천 국가 정원, 진주성, 양산,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 대왕암 공원, 충주 탄금대 등이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를 둘러보며 단풍 및 온천 관광



▲ 사우스베이 한미 노인회에서 단풍 시즌을 맞아 한국, 일본 그리고 태국 관광을 떠난다.

의 향연을 경험한다. 특히, 하나투어에서 자부하는 최고의 온천호텔의 실내외 온천장에서 매일 일본의 최상질의 온천욕을 하게 된다. 주요 관광지는 삿포로, 오타루, 노보리베츠, 쇼와진잔, 도야 호수, 키타유자와 등이다.

특히, 태국에서는 방콕과 파타야에서 하나투어의 유일한 관광 코스를 통해 인근 유적지와 휴양지를 모두 들

러보는 환상적인 여행 일정을 갖는다. 주요 관광은 무앙보란 유적, 태국 전통 민속 공연, 나수팜, 산호섬(꼬란섬) 각종 레저 체험, 발리하이 피어, 농눅 빌리지, 파타야 수상시장, 황금절벽 사원 (왓 카오 치 짠), 수상 부페, 진리의 성전, 에이시아티크, 수완나폼 등이다.

전 일정을 한국의 하나투어와 협력하여, 신청 인원내 상관없이 예정된 여행 일정을 진행하며, 여행경비 이외의 추가적인 선택관광(Option Tour) 비용은 없으며, 태국 산호섬에서는 개별적으로 레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경비에 숙박, 입장료, 승선료, 교통편을 제공 받게 된다.

요금은 한국관광 5박 6일(\$1,300), 일본관광 3박 4일(\$1,500)이며, 태국 관광 3박 5일(\$700)이다. 한국, 일본, 태국을 모두 여행하는 비용은 \$3,500이며, 항공료는 별도이지만, 별도의 입국 비자 신청은 없다. 여행 신청 마감은 9월 12일(금)이다.

모든 여행 일정의 항공편은 대한항공이며, 서둘러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으면 늦을수록 항공료가 올라가게 된다. 춘추여행사 본점에서 저렴한 항공권 예매와 좌석 지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14) 521-8989

# 자의적 불시 이민단속 못한다

## 항소심 재판부, 로빙 방식 제한 판결

로빙(roving) 방식의 이민 단속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종과 언어 사용 등 차별적 요소에 기반한 단속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 해당 인물이 불법 체류 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로빙은 장소나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혹은 현장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단속은 지난 6월 LA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라티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항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였으나 일부 폭력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건물 보호 및 이민 단속 지

원을 명목으로 LA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했다. 이후 이들 병력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보호국이 '스페인어 사용', '특정 외모', '위치', '직업' 등을 근거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단정짓고 체포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연방지법 판사는 이러한 단속이 수정 헌법 제4조의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판사단은 "외형적 인종 또는 민족성, 스페인어 사용 혹은 억양 있는 영어 사용, 특정 장소에 존재하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별적인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세차장, 견인차 보관소 등에서 이뤄진 체포 장면으로, 시민권자까지 포함한

이들에게 합법적 체류 여부를 묻고 연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조항을 수정했다. 원 판결문에는 단속 근거 요소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항소심은 해당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방식을 비판했다. LA에 본부를 둔 이민자 옹호단체 '이민자 수호자 법률센터'의 린지 토칠로스키 대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사냥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구금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정부 측은 연방 단속 요원들이 특정 장소에서 불법 이민자가 자주 발견된다는 과거 경험과 정보 패키지에 근거해 단속을 벌인다고 주장해왔다.

Implant <b>\$1,500</b>	잇몸치료 <b>\$600</b>	Exam X-ray Cleaning <b>\$80</b>	 <p>Dr. Soung Hoon Cho DDS</p>
Crown <b>\$700</b>	틀니 <b>\$2,000</b>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b>KMC Dental Group</b>			
<b>Irvine</b>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b>L.A.</b>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b>Hacienda Heights</b>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b>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b>